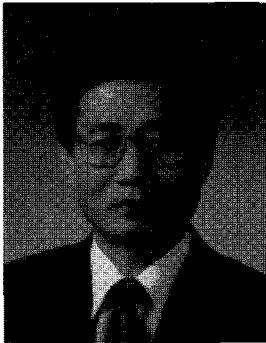


특허정보 활용은 글로벌시대 신경영전략



유 영 기
한국특허정보원/원장

21세기는 IT, BT, NT 등 새로운 지식과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개발과 보호를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첨단·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 경쟁력 우위 유지를 통한 세계 경제 주도권 장악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법 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선진기업들간의 전략적 기술제휴, 크로스 라이선스, 첨단기술 공동개발 등을 통해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번 삼성전자와 소니의 LCD 합작회사 S-LCD사의 출범은 급성장하는 LCD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후발기업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와도 전략적 제휴, 합작이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S-LCD사의 출범으로 삼성전자는

소니의 세계 1위 TV 시장을 확보하게 됐으며, 또한 제품 및 생산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두 회사가 공동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인 것이다.

선진기업들이 이러한 전략을 떠나가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과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권을 필두로 한 신경영전략이다.

이같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세계 경영환경 속에서 특허정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설정,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권리화된 기술의 보호 등 지식재산권 경영전략은 모든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구개발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미흡, ▲기술의 권리화 및 보호 등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KIPRIS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특허정보 검색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효율적인 특허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바로 특허정보의 활용이다.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기존 기술의 특허침해 여부는 물론, 보유기술의 타인 특허침해 여부의 감시, 공백기술 검색을 통한 특허 우위 선점 등 특허정보는 실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첨단기술 진보 주기가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고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보편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나 특허정보는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기술개

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의 수립, 신기술 선점과 중복투자 방지 등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생존전략 수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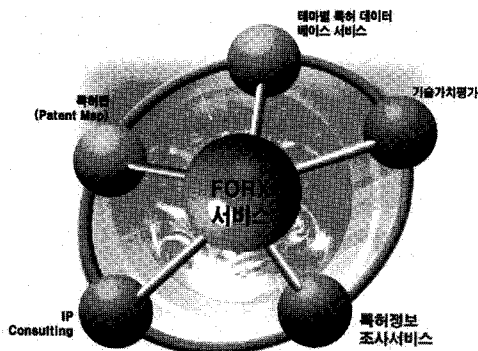
따라서 연구개발 구상단계에서부터 국내외 특허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행기술 유무를 확인한 후에 연구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선행 기술이 있을 시에는 개발방향을 재정립하고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1947년 이후 국내 산업 재산권 정보 전체와 1980년 이후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특허정보를 KIPRIS(www.kipris.or.kr)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IPRIS 인터넷 서비스는 특허청 보유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을 통해 기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수발명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ORX 서비스를 통한 특허정보 분석

또 연구개발 시작단계에서 선행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개발 중, 개발 후, 특허등록 직전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KIPRIS를 통해 검색된 행정정보와 기술정보 수집만으로 특허정보에 대한 전략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이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공백기술을 찾아내고 연구개발하려는 기술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분석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타사 특허와의 저촉을 피할 수 있는지, 설정된



특허권에 대한 침해방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들 특허정보 분석은 인력과 비용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특허정보분석 종합서비스인 FORX 서비스(www.forx.org)를 제공하고 있다. FORX 서비스는 전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특허출원시 선행출원의 유무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 조사, R&D 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등을 상담하는 IP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에 포함된 항목을 추출하여 분류, 분석, 가공해 이를 도식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의 발전추이, 기술흐름의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맵(Patent Map)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

특허정보는 글로벌 경영전략

특허정보는 이제 치열한 국제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시대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문제점의 조기 경보를 통한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허통계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 및 관련 분야 기술연구의 동향을 지표화하고 관련분야와의 상관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경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예측 및 사업기획 단계 등에서 특허정보의 이용을 통한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세계는 이제 기술개발이 경쟁력이 되던 시대에서 특허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